



4월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한평생 단견이 평등이며 우애

4월의 봄빛이 짙어가는 지금 우리 겨레의 눈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아버지 수령님의 모습이 삼삼히 어러오고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던 그 단정한 음성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온 민족의 관심속에 진행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는 1000여만명의 당원과 맹원을 가진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가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지한 합의는 이룩하여

아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향을 밝힌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하여주시였다.

하시느라고 분초를 쫓으며 사업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바탕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보여주셨고 친필준말로 비준해주셨다.

《내 고향》은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 창작된 예술영화이다. 이 잊을수 없는 영화의 대본을 맡아 쓴 작가가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김승구이다. 그가 북에 들어온것은 1946년 7월이였다.

진한 소년의 눈가에 비껴든 고향의 모습이였다. 그로부터 두세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고 류량아의 구슬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4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김승구를 지력으로 불러주시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지만 그 때만이라도 조국을 찾아주시길 바랐다.

김승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너무도 겸손한 방에서, 너무도 순수한 생활을 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항일투쟁투쟁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저녁때가 되자 식사도 마련해주시였다.

백초 홍명희의 감격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4월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고있을 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청장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백초 홍명희선생은 극장 휴게실에서 자못 흥분되어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번에 련석회의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서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을 막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애국애족의 방침을 밝히시였다.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남조선에서 온 일부 인사들이 평양을 떠나기 시작하던 주체37(1948)년 5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홍명희선생의 숙소를 찾으시였다.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할수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신생활계몽운동》을 시작으로

4월인민봉기후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져있고 남조선사회에 심각한 모순이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4월에 시작한 투쟁과업이 력사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였으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신생활계몽운동》이 시작되였다.

《전국실업자련맹》을 비롯한 실업자단체들을 무였다.